



'칠레 프리미엄 시라'

그라바스 델 마이포 시라

Gravas Del Maipo Syrah

지역	칠레 > 센트럴 밸리 > 마이포 밸리		
포도품종	시라 93% 까베르네 소비뇽 7%		
알코올	14.8%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붉은 과실 향, 꽃 향기와 약간의 스모크 향이 주를 이룬다. 입 안에서는 프레쉬한 산도와 섬세하면서 부드러운 탄닌이 조화롭게 느껴진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익힌 채소, 단단한 치즈,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그라바스(Gravas)는 자갈(Gravel)이란 뜻으로 마이포 밸리의 자갈 토양을 의미한다.

높은 배수력의 척박한 토양에 깊게 뿌리 내린 시라는 여러 토양이 주는 복합적인 향과 미네랄이 특징이며, 프렌치 오크통에서 14개월 이상 숙성된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2019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Top 100 Chile, 36위

2018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4점 TOP 100 선정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가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